

평창올림픽 공사입찰 마무리 수주금액 1천억 급감

건설업계 올 7-9월 2,362억 수주 2012년 3,222억과 대비
공공공사 물량도 6,146억 줄어 중소건설사 경영난 우려

올해 하반기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 금액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해 7-9월 3개월간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2,362억240만원에 그쳤다. 2011년 2,487억700만원, 2012

감소한 것은 공공공사의 상반기 조기 집행, 대형SOC사업 및 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공사의 입찰이 마무리되면서 공사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전체 공공공사 발주물량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공기관 공사물량은 지난해 대비 6,146억원이나 줄어든 3조4,249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2조5,627억원에 달했던 100억원 이

상 대형공사도 올해는 1조6,192억원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9,435억원 줄어 들었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3,166건 5,891억원으로 전체의 86.1%나 차지해 수주 경쟁에 따른 일부 업체 적자시공도 우려된다.

향후 건설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달보다 1.4포인트 떨어진 77.2를 기록하는 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의 공사물량이 줄어들어 향후 수주금액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지역 중소건설사의 수주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사물량 증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문기자 law49399

오늘 강원경단련 발기인대회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강원경단련)가 11일 오후 2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기인대회를 갖는다.

발기인대회에는 강원경단련이 범경제단체모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농업 축산업 관광업 건설단체 상공회의소 등의 단체들이 참석한다.

이날 임원선출안과 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창립총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김보경기자 bkk@

도내 신규 건설수주액 매년 감소세

올해 8월까지 1조899억원 수주

2010년 1조5459억 이후 내리막

강원도내 신규 건설수주액이 감소하는 등 수주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표>

10일 도건설협회(회장 오인철)에 따르면 민간공사를 제외한 주요 공공기관 대상 신규수주 현황을 보면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올 수주액은 1조899억 원이다.

지난해 총 수주액 1조2984억원 보다 2085억원이 부족하다.도내 건설 신규수주액은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조5459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2011년 1조1376억원, 2012년 1조2710억원, 2013년 1조4666억원, 2014년 1조4286억원, 2015년 1조2984억원으로 감소세다.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설 수주액 감소는 불가피하다.

■ 공공기관 대상 건설수주 현황

연도	건수	금액
2016(8월까지)	1645	1조899억
2015	2152	1조2984억
2014	2024	1조4286억
2013	2645	1조4666억
2012	2017	1조2710억
2011	2142	1조1376억
2010	1887	1조5459억

지난해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64곳으로 전체 등록 업체 중 10%를 차지한다.

건설 불황에 업체수도 줄고 있다.도내 건설회원은 633곳으로 2010년 723곳과 비교해 90곳이 줄었다.

안은복 rio@kado.net